

# 게오르그 바젤리츠

## 《황금빛 영웅》

기획: 루카 마사모 바르베로  
2026년 5월 6일—9월 27일

조르조 치니 재단(Fondazione Giorgio Cini, Isola di San Giorgio Maggiore, Venice)

나의 예술 여정의 끝자락에 선 지금, 그간의 여정을 갈무리하는  
일종의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라 생각했다. 다시 말해, 지난 세월의  
작업들을 하나의 세계로 집대성하는 것이다.  
— 게오르그 바젤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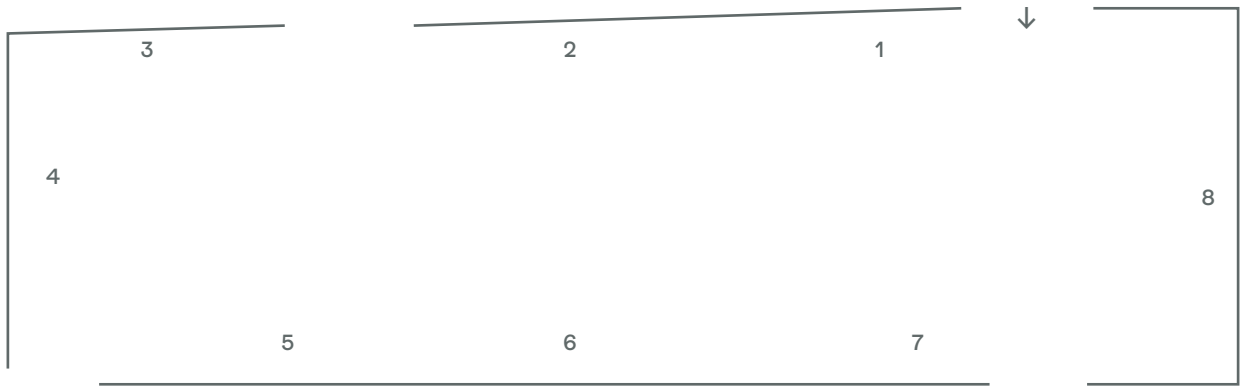
조르조 치니 재단(Fondazione Giorgio Cini)은 게오르그 바젤리츠(Georg Baselitz)의 최신작을 선보이는 개인전 《황금빛 영웅(Eroi d'Oro)》을 개최한다. 전시는 재단 내 미술사 연구소 디렉터인 루카 마사모 바르베로(Luca Massimo Barbero)가 기획하고 타데우스 로팍 갤러리가 후원한다. 제61회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열리는 본 전시는 찬란한 황금빛 배경과 섬세하게 그려진 형상 사이의 오묘한 조화를 탐구하며, 일부 화면 위로 강렬한 임파스토 색채가 폭발하듯 층을 이룬 작가의 대형 회화 연작을 조명한다. 신작에 대해 작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금은 주변 환경과 그림자, 그리고 공간감마저 흡수한다. [...] 그 위, 마치 종이 위에 그려진 누드 드로잉처럼, 내가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한 선들이 자리 잡는다.”

본 전시를 통해 바젤리츠는 자신의 평생에 걸친 작품 세계를 반추하며, 예술적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간의 작업들을 집대성한다. 이탈리아어로 ‘황금빛 영웅’을 뜻하는 전시명 ‘Eroi d'Oro’는 작가의 초기 대표작인 〈영웅(Hero)〉 연작을 소환한다. 바젤리츠의 작업에서 황금색은 항상 다채로운 함축적 의미를 지녀왔지만, 그는 “지금까지 내가 만든 황금 회화 중 진정한 황금 배경 회화는 없었다. 황금색으로 배경을 칠할지라도, 그 위의 대상에 대한 덧칠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어 “이번 작업은 완전히 다르다. 특유의 거친 느낌과 함께 일종의 고독함이 서려 있다”라고 덧붙인다. 수척해진 신체는 연약하고 비워진 듯 깊은 잔상을 남기며 황금빛 배경이 자아내는 숭고함과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하고, 작가는 이를 통해 인물들에게 경외심마저 느껴지는 존엄과 생명력을 부여한다.

도판과 함께 전시 기획자 루카 마사모 바르베로의 글이 수록된 본 전시의 도록이 출간되었다.

게오르그 바젤리츠

《황금빛 영웅》



SALA CARNELUTTI



SALA PICCOLO TEATRO

- |  |   |   |
|--|---|---|
| <p>1. 황금빛 스타킹도 존재하는 법<br/>2025<br/>캔버스에 유채 그리고 금색 물감<br/>450 × 300 cm (177.17 × 118.11 in)</p>       | <p>7. 황금빛/황금<br/>2025<br/>캔버스에 유채 그리고 금색 물감s<br/>450 × 300 cm (177.17 × 118.11 in)</p>              | <p>13. 입장은 허락되나, 무엇을 할지는 묻지 마라<br/>2025<br/>캔버스에 유채 그리고 금색 물감<br/>450 × 300 cm (177.17 × 118.11 in)</p> |
| <p>2. 황금빛은 과도한 황홀경이 될 수 있는가<br/>2025<br/>캔버스에 유채 그리고 금색 물감<br/>450 × 300 cm (177.17 × 118.11 in)</p> | <p>8. 탁자 위 하나의 황금빛 알<br/>2025<br/>캔버스에 유채 그리고 금색 물감<br/>450 × 300 cm (177.17 × 118.11 in)</p>       | <p>14. 의자를 그리는 것도 분명 가능했으리라<br/>2025<br/>캔버스에 유채 그리고 금색 물감<br/>300 × 215 cm (118.11 × 84.65 in)</p>     |
| <p>3. 천사들은 떠나갔다<br/>2025<br/>캔버스에 유채 그리고 금색 물감<br/>300 × 215 cm (118.11 × 84.65 in)</p>              | <p>9. 그저 중심에 머무는 것<br/>2025<br/>캔버스에 유채 그리고 금색 물감<br/>300 × 215 cm (118.11 × 84.65 in)</p>          | <p>15. 조금 더 고요하게<br/>2025<br/>캔버스에 유채 그리고 금색 물감<br/>300 × 215 cm (118.11 × 84.65 in)</p>                |
| <p>4. 작은 단 위의 튀르키예식 바지<br/>2025<br/>캔버스에 유채 그리고 금색 물감<br/>460 × 300 cm (181.1 × 118.11 in)</p>       | <p>10. 열케, 세 개의 면<br/>2025<br/>캔버스에 유채 그리고 금색 물감<br/>300 × 215 cm (118.11 × 84.65 in)</p>           | <p>16. 황금빛 앞치마<br/>2025<br/>캔버스에 유채 그리고 금색 물감<br/>300 × 215 cm (118.11 × 84.65 in)</p>                  |
| <p>5. 은유적인 두더지도 황금빛일 수 있을까<br/>2025<br/>캔버스에 유채 그리고 금색 물감<br/>450 × 300 cm (177.17 × 118.11 in)</p>  | <p>11. 위에서 본 보행로, 다시 그리고 다시<br/>2025<br/>캔버스에 유채 그리고 금색 물감<br/>300 × 215 cm (118.11 × 84.65 in)</p> |   |
| <p>6. 비키니를 입은 황금빛 배경<br/>2025<br/>캔버스에 유채 그리고 금색 물감<br/>450 × 300 cm (177.17 × 118.11 in)</p>        | <p>12. 황금빛 위의 불안<br/>2025<br/>캔버스에 유채 그리고 금색 물감<br/>300 × 215 cm (118.11 × 84.65 in)</p>            |   |